

# 목포 대형마트, 말뿐인 지역 상생협력

## 입점당시 인력고용·물품구매 등 약속 안 지켜 상권 장악에 재래시장·소상공인들 생계 위협

대형 마트들이 목포에 입점하면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목포지역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2곳을 비롯해 대형마트 4곳이 입점해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재래시장 연합회 따르면 남교동 중앙 식료시장의 경우 70여개 점포에서 현재는 20여개 점포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연산동 신

중앙시장은 30%가 감소했으며, 향동시장 역시 약 30%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대형마트들이 입점 당시 상생협력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재래시장연합회 김영기 회장은 “대형 마트들이 입점시 매장확보, 인력고용, 지역 물품이용 등을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역 경제인들은 “대형 마트

들이 매일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당일 즉시 본사로 입금처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기준 원도심에 소재한 대형마트 한곳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은 30억여원이며, 하당에 소재한 E, L마트 2곳의 매출액은 영업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도심 대형마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대형마트에서 사회공헌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도서관과 아동용 선물기증 등 미미한 것에 그쳐 지역민들을 의식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따가운 눈총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지난 22일 지역내 상업중

인 3대 대형마트 본사에 지역자급역대 활용과 지역 고용인력 및 용역업체 활용, 지역 인보사업의 확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서한문을 통해 “대형마트들이 지역 상인들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역제품 구매는 물론 지역 고용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영순 회장은 “지역과 밀착해 성장해온 유통업체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의에 환원하는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좋은 아침입니다” 합평군 출근 인사  
합평군 직원들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간 아침인사를 하고 있다. 합평군은 9월 9일까지 매일 아침 8시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을 ‘인사타임’으로 정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인사 운동을 펼친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 남도 들노래·진도 북춤·진도 만가

### 진도 고유 민속 문화 체험하세요

25~26일 인지도 축제

진도의 고유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6회 인지도 민속 문화축제’가 25~26일 이틀간 진도만인지리 등에서 열린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서는 ‘남도 들노래’(중요 무형문화재 제51호)와 ‘진도만가’(전남도 지정 문화재 제19호), 진도 북춤, 강강술래, 판소리 등의 민속문화 공개 시연회와 다양한 체험·전시 행사가 마련됐다.

또 전통 떡과 한과, 올금비누 만들기 등 체험과 함께 민속놀이기구, 전

통 공예품, 야생화 등 전시행사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역축제로는 처음으로 국내 3대 음악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 음원제작자협회·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을 한다. 이들 단체는 내년부터 직접 축제 주관할 말을 예정이다.

실전식 민속문화축제 위원장은 “단일 마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건문화제와 무형문화제를 보유한 인지도는 진도의 민속 문화를 계승·보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한국보전커뮤니티(KCC) 지식워크숍 및 해양권역 운영대회  
일시: 2011.8.23(수) 10:00~16:00 장소: 삼거리호텔(주관: 국립공원관리공단/주최: KCC해양권역사무국)

### 국립공원관리공단 목포서 보전커뮤니티 워크숍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23일 목포 삼거리호텔에서 한국 보전커뮤니티(KCC) 지식워크숍 및 해양권역 운영대회를 열었다. (사진)

이번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된 관매도 조성 사례와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방향과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 보전커뮤니티(KCC)는 다도해, 태안, 변산반도, 한려해상 등 6개 해양권역 국립공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연보전학회, 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보전 활동 강화와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지원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친환경 감자 재배 진도 연구회 결성

진도에서 친환경 감자재배 연구회가 결성됐다.

진도군 친환경 감자 재배 농업인 40여명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최근 ‘친환경 감자재배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감삼철)을 비롯해 각 읍·면별 운영위원 1명씩을 선출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과 재배기술 향상·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견학·현장연찬·세미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삼철 회장은 “진도군 친환경 감자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활발한 기술·정보 교환과 친환경자재 공동 구입, 유통 일원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해남 알리기 ‘내일로 관광’ 인기

#### 매주 80여명 대학생 기차 타고 해남 찾아

기차를 타고 땅끝 해남을 여행하는 관광상품이 여행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남군이 코레일 광주본부와 운영하고 있는 ‘내일로’ 철도 관광상품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도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남을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상품으로 매주 80여명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레일 목포역 박석민 역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대학생 등 90여명이 대항사와 두문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국토

순례 시발지 땅끝 일대를 돌아봤다.

군과 코레일 광주본부는 지난 4월 협약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위한 상호 윈윈(Win-Win)하는 관광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버스임차료·홍보비·관광지 입장료 할인 지원하고, 코레일 광주본부는 철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열차 운임할인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체험과 특색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행객들이 보다 질 높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dia@

## 전 북

### 새만금 석탄재 매립 추진 논란

#### 농어촌공사 강행 방침에 환경단체 “수질오염” 반발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석탄재로 매꾸려는 계획을 놓고 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시행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온 석탄재 200만㎥를 연약지반인 새만금산단을 매꾸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단은 서천발전소 아적장에 있는 석탄재를 가져오기 위해 최근 군산항에 임시 하역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군산 항만청에 냈다.

새만금 사업단은 총 200억원을 들여 올해 10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해 석탄재를 군산항으로 모으고 나서 량프방식의 배사관(7km)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보다 보내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새만금경제청은 “2010년 환경부가 이 석탄재에 대한 중금속 용출시험을 했으나 기준치 이하의 중금속이 검출돼 산단 매립제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석탄재 매립으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도 오염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 하천사랑운동본부와 군산경실련 등은 “새만금 산단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로 골재가 아닌 석탄재로 대체한 것은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중금속 등으로 밀미암은 환경오염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재가 새만금에 매립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빗물이 유입돼 침출수가 해양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조량 부족 비상, 잘 익어야 할텐데...  
장수군 장수읍의 한 사과농장에서 농부들이 추석전 출하를 앞두고 긴 장미로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한 사과가 잘 익도록 앓을 때내고 있다. 해발 45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장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 최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수군 장수읍의 한 사과농장에서 농부들이 추석전 출하를 앞두고 긴 장미로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한 사과가 잘 익도록 앓을 때내고 있다. 해발 45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장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 최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 군산-中 스타오항 여객선 출입국·세관심사 지연

## 승객들 “특하면 1시간씩 대기” 불만

#### 출입국관리소 “검색 인력 부족 탓” 해명

군산항과 중국 스타오(石島)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검색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여객선 이용객들에 따르면 스타오 항을 출발한 여객선이 군산항에 매주 화·목·일요일 등 일 주일에 3차례 오전 8시에 입항하지만 검역과 출입국심사 등은 오전 9시까나 돼야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군산항에 도착하고도 곧바로 여객선에서 내리지 못한 채 길게는 1시간씩 대기하고 있다. 여름방학 요즈음에는 중국 관광객과 견

학을 갔다 온 대학생 등 단체 승선이 부쩍 늘어 검역과 심사 시간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

상인 김모(45·군산시)씨는 “중국 스타오에서 전날 오후 6시에 출발해 이튿날 아침 일찍 군산항에 도착하면 무척 피곤한데 검역과 출입국심사, 세관 심사가 1시간씩 지연된다”면서 “이러한 지연 검색은 국제 여객선이 운항할 당시인 2008년 4월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관계자는 “일 주일 세 차

레 중 목요일 하루의 검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목요일에 인근 미군공항의 출입국심사를 위한 출장과 겹치기도 하고, 출장소 내부 검색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군산출장소 정원 6명 가운데 실제 검색관할을 가진 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상부에서 내년부터 인력을 다소 증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항~스타오항을 운항하는 ㈜서도해리의 평균 탑승인원은 400~500여 명에 달한다.

/전북취재본부=박규석기자 nogusu@

### 토양 개량 ‘규산질’ 액체비료 나왔다

#### 미라산업 ‘보난자’ 출시

벼와 밭농사에 필수적인 규산질 성분은 액체화한 비료가 상품화돼 농업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미라산업(대표 김영덕)은 3년여의 실증시험을 거쳐 최근 수용성 규산질 비료 ‘보난자’를 선보였다.

기존에는 규산질 비료가 20kg 포장으로 공급돼 고령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무거워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출시된 제품은

물 500~1000대 1로 희석해 분무기로 뿌려주면 된다.

규산질 비료는 산성토양을 개량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발육과 성장을 촉진하고 뿌리·잎·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병해충에 강하고 쓰러짐 방지, 생산량 증가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면 광합성의 식물체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 살균제 사용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축산위생연구소 시험장 진안군으로 이전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이 진안군으로 이전된다. 도는 23일 축산시험장 이전을 희망한 김제시와 진안군, 장수군 등 3개 지역의 부지를 현지 실사에 토양과 기후, 사료작물 재배 여건 등이 우수한 진안군 신기지

구를 이전 지역으로 결정했다. 현재 축산시험장이 있는 김제 백산면 부지에는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축산시험장의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주시 노인 일자리사업 상봉터졌다

전북도의 ‘2010년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전주시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효자 시니어클럽의 천년누리봄 사업과 금암노인복지관 학습도우미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서원 시니어클럽의 ‘은빛 웰빙사업’ ▲전주 시니어

클럽 ‘실버인력뱅크사업’ ▲덕진노인복지관 ‘술내과견단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공분야(공익형·교육형·복지형)와 민간분야(시장형·인력고용형)로 나눠 14개 시·군 353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 ‘농·축·특산물 쇼핑물’ 본격 운영

정읍시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통한 역대농부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읍 농·축·특산물 쇼핑물’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1억5000만원을 들여 12월 25일까지 쇼핑물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까지 쇼핑물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최소 50개 업체 300개 상품을 입점하고 매년 업체 수와 상품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63-539-6262)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까지 쇼핑물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최소 50개 업체 300개 상품을 입점하고 매년 업체 수와 상품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63-539-6262)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 25일 고창 무대

창극(唱劇)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25일 오후 7시 30분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해 지난 2005년 창극으로 만든 것으로 40여명의 국립창극단과 무용단원이 출연한다.

문화관광부·한국 문화예술위원회·고창군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향수를 극대화해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학생 1500원이다. 문의(063-560-2321)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